

#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gskang@kiep.go.kr, 044-414-1099)

**이보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044-414-1045)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044-414-1086)



## 차 례

1. 한·미·일 정상회의의 배경
2. 한·미·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
3.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함.
-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에 합의된 경제 관련 협력방안은 크게 △3국 협력 제도화 △개발협력 △경제협력 △글로벌 이슈로 구분할 수 있음.
  - [협력 제도화] 3국은 정상회의와 4개의 장관급회의 연례화에 합의함으로써 안보 이슈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포괄적 범위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개발협력] 3국은 개발금융기구간 공조 확대, 개발정책대화와 같은 개발협력 협의 채널을 통해 인태지역 인프라 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함.
  - [경제협력] 3국은 △경제안보대화 운용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신흥기술 협력 △핵심기술 보호 △표준 등 첨단 핵심산업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함.
  - [글로벌 이슈] 3국은 보건 분야와 인적교류 협력 강화에 합의함.
-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상회의와 국방·외교·산업·경제협력 부문 장관급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간 협력체계의 제도화, 한국의 미국 주도 인태지역 3자 소다자협의체 정식 참여, 국방·외교·산업·개발협력·금융 등 포괄적 범위에서 3국간 협력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 3국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의 주요 대상품목인 핵심광물에 대한 미·일과의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자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미·일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이 확보 중인 핵심광물 개별 프로젝트 정보를 더욱 긴밀히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MSP 차원에서 협의 및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해당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간 핵심신흥기술(CET) 공동개발 및 보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산학연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부처 실무 대응조직을 조속히 구성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3국간 산학연이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의 유관부처에 상응하는 한국 내 실무 대응조직의 조속한 구성 및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함.
- ▶ 아울러 한국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미·일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 한·미·일 정상회의 배경

### ■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됨.

- 한·미·일 정상은 3국간 협력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함.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간 협력체계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동북아 지역에 국한된 현안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제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3국은 지난 1년여간 한·일 관계의 회복 움직임과 함께 2022년 6월 나토정상회의, 202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회의 석상에서 세 차례의 정상회의를 개최함.
  - 특히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 협의 채널 출범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제1차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했던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 및 중국 패권 확대 움직임 등 역내 안보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지역안보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미·중 패권경쟁 심화 및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임.

### ■ [군사안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중국의 역내 패권 움직임 확대, 러·우 전쟁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군사안보 강건성 도모를 위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 2022년 들어 북한은 총 70여 차례에 이르는 역대 최고치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였음.<sup>1)</sup>

### ■ [경제안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요 물자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 심화 및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부각됨.

- 미국 주도의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각국 정부의 첨단기술·산업의 보호기준 강화 등의 요인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짐.
  -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오키스(AUKUS), 퀴드(QUAD)와 같은 소다자 협의체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 중임.
-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022년까지 크게 높아져 중국은 양국의 제1수출국의 관계에 올랐으나, 미·중 패권경쟁 심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강화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7월간 19.6%로 중국은 여전히 제1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였으나, 전년동기 비중인 22.8%에서 3.2%p 감소한 한편, 동 기간 제2수출국인 미국의 비중은 16.1%에서 18.0%로 확대됨.

1) CSIS(2023), <https://missilethreat.csis.org/north-korea-missile-launches-1984-present/>(검색일: 2023. 8. 21).

- 2023년 상반기 일본의 수출추이를 살펴보면 대중 수출비중은 17.2%로 전년동기 비중인 19.4%에서 감소하면서 중국은 제1수출국에서 제2수출국이 된 반면, 동 기간 대미 수출비중은 17.9%에서 19.3%로 확대되며 미국은 일본의 제2수출국에서 제1수출국으로 부상함.

표 1.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 파트너

(단위: 비중 %)

한국				일본			
국가명	'23 순위	'22. 1~7	'23. 1~7	국가명	'23 순위	'22. 1~7	'23. 1~7
중국	1	22.8	19.6	미국	1	17.9	19.3
미국	2	16.1	18.0	중국	2	19.4	17.2
일본	4	4.5	4.6	한국	3	7.5	6.8

자료: 무역협회, 일본통계청(검색일: 2023. 8. 2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중국요인]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첨단산업에서의 경쟁심화로 이어져 한국, 미국, 일본 3국 모두 중국 대비 자국산업의 우위를 도모할 필요가 커졌으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높아진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역내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고조됨.

- 동북아 역내 세력균형은 중국의 고속성장으로 2010년 중국이 일본 경제규모를 추월한 이후 급속도로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2022년 명목GDP 기준 한국은 중국 경제규모의 9%, 일본은 24% 수준을 기록함.<sup>2)</sup>
-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규모 자본력(차이나머니)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최근 5년간 가파른 양적성장을 거듭한 결과 한국, 미국, 일본을 제치고 2022년 4개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수출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격차는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한국은 4개 첨단산업 중 전기차, 반도체 산업에서의 수출점유율이 확대되었으나, 1위국인 중국과의 격차는 확대되었으며,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산업에서의 수출점유율은 동 기간 감소하였음.
- 4개 첨단산업에서 일본의 수출점유율은 최근 5년간 감소 또는 현상유지에 그쳤으며, 4개 첨단산업 중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미국, 중국 대비 낮은 글로벌 수출점유율을 기록하였음. 특히 자동차 강국인 일본의 전기차 수출점유율 급감(11.8%→4.8%)이 눈에 띈.
- 미국 또한 4개 첨단산업에서 중국 대비 낮은 수출점유율을 보였으며, 특히 전기차 수출점유율이 2017년 25.9%에서 2022년 9.7%로 큰 폭으로 감소함.

표 2. 한·미·일·중 4개 첨단산업 수출점유율 변화(2017년, 2022년)

(단위: 비중 %)

국명	전기·자율주행차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2017		2022		2017		2022		2017		2022		2017		2022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중국	10	1.3	2	17.3	중국	1	24.3	1	45.9	중국	2	15.3	2	21.4	중국	1	29.3	1	28.9
미국	2	25.9	3	9.7	한국	2	12.5	2	8.0	한국	4	11.5	4	12.8	미국	7	4.8	2	9.6
한국	5	4.6	4	7.5	일본	3	9.4	6	4.3	미국	6	7.2	5	7.5	한국	3	11.1	5	6.2
일본	3	11.8	7	4.8	미국	4	7.1	8	3.3	일본	8	4.7	6	4.6	일본	5	5.2	6	5.8

주: 1) HS코드(6단위)는 박창현, 이용대, 이 웅(2022), p. 18 참고함.

2) 반도체 수출점유율 순위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무역·유통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를 포함함.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World Bank Open Data(2023), <https://databank.worldbank.org/>(검색일: 2023. 8. 21).

■ [경제실익]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한·미·일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는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함.

- 일례로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설계 및 제조장비, 한국은 메모리,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내 웨이퍼 생산에 각각 특화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임(표 3 참고).
-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3국간의 협력은 첨단기술 보호주의의 진영화가 심화되는 현재, 3국의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시장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 핵심기술에 대한 주요 5개국의 수준을 진단한 결과 최고 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이 잇고 있음.<sup>3)</sup>

표 3. 반도체 분야별 시장점유율

(단위: 십억 달러, 비중 %)

분야	시장규모 (십억 달러)	미국	대만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메모리 반도체	128	5%	11%	44%	20%	5%	-		
시스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4	74%	1%	1%	3%	1%	21%	
	파운드리	64	<10n	-	75%	25%	-	-	-
			10n~22n	43%	28%	5%	-	3%	12%
			26n~45n	6%	47%	6%	13%	19%	4%
			45n<	9%	31%	10%	27%	23%	6%
제조 후공정	29	19%	54%	-	-	24%	-		
웨이퍼	11	-	17%	12%	57%	-	-		
반도체 제조장비	77	46%	-	-	31%	-	22%		

자료: 윤정현(2022), 「기술지정학 시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대응전략」, p. 62, INSS 연구보고서 2022-15.

■ 상기 언급된 요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협력 강화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한·일 관계 회복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3국 공조 강화로 이어짐.

- 2023년 5월 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서틀외교 복원, 지소미아(GSOMIA) 정상화 합의, 2019년에 단행된 모든 수출규제 해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6월 한·일 양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합의함.<sup>4)</sup>
  - 한·일 관계에는 과거사 문제, 영토분쟁과 같은 갈등요인이 항상 존재하는데,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단행되면서 정치·외교 갈등을 넘어 경제관계까지 위축된 바 있음.

3) 핵심기술 평가는 11대 분야(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 ICT·SW)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 3. 12), 「심화되는 국가간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120개 중점과학기술 경쟁력 지속적으로 향상」.

4) 김규판(2023), 「한·미·일로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 한일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KIEP 내부자료.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동시에 내용 측면에서도 협력 범위가 동북아 역내안보뿐 아니라 경제, 보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개발협력까지 확대되어 3국간 협력을 한 단계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1차 한·미·일 정상회의와 함께 양자 정상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됨.
  - 이하에서는 제1차 한·미·일 정상회의 및 함께 개최된 양자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3국간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 한·미·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

### 가. 한·미·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

- 한·미·일 3국 정상은 3국 협력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함.
  -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의 원칙과 협력방향,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보다 구체적인 3국간 협력방안을 명시하였으며,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위협 발생 시 정책공조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정상회의 결과 한·미·일 3국의 협력의제는 기존 외교·군사 안보 등 개별 현안 중심에서 경제안보, 기술협력, 개발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의제로 확대되었으며, 협력의제의 지역 범위도 기존 동북아지역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의 반경이 넓어진 것 또한 특기할 만한 사안임.
  -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시된 3국간 협력방안은 크게 3국 협력 제도화, 군사안보협력, 역내 개발협력, 경제협력,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협력 제도화]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하 4개의 장관급회의의 연례화에 합의함으로써, 한·미·일 3국간 안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 글로벌 이슈 등 전방위적인 협력 범위에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기틀을 마련함.
  -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은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안보실장회의, 산업·상업장관회의의 연례화에 합의하였으며, 3국 재무장관회의의 연내 개최를 환영하였음.
  - 또한 3국은 차관보급(Assistant Secretary)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인태지역 내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등 각국의 역내 전략 및 정책을 조율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 이로써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를 포함하여 국방, 외교, 산업, 경제협력, 금융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6개 3국 장관급·차관급 회의를 비롯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다방면의 협력 채널을 운용할 방침임.

표 4. 한·미·일 협력체제 구축

분야	3국간 협의체	비고
국방	• 국방장관회의*	• 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
외교	• 외교장관회의* • 인도태평양대화(차관보급)	
산업	• 산업·상업장관회의*	
표준	• 한미표준협력포럼	
안보	• 안보실장회의*	• 경제안보대화 • 핵심기술보호 협력체제
금융	• 재무장관회의	
개발협력	• 개발정책대화(국장급)	
연구협력 인적교류	• 압 정책대화 • 청년리더십대화 • 기술정책교육프로그램	

주: \*는 연례화에 합의된 회의 표시임.

자료: 백악관, "FACT SHEET: The Trilateral Leaders' Summit at Camp David,"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fact-sheet-the-trilateral-leaders-summit-at-camp-david/>(검색일: 2023. 8. 21)  
토대로 저자 정리.

■ [군사안보] 3국은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구축, 다년간 3자 군사훈련 계획 수립, 정기적 3자 군사훈련 실시, 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WG) 신설 등에 합의함.

-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공유체계 강화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봉쇄 등 3국간 군사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역지력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 [역내 개발협력] 3국은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채널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력 공조 강화에 합의하였음.

- 3국은 개발금융기구(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DFC, 일본 국제협력은행 JBIC, 한국 수출입은행 EXIM)간 공조를 확대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질의 인프라 개발, ICT, 탄소중립, 공급망 관리 등 분야에서의 공동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함.
- 3국은 국장급 개발정책대화(10월 예정)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3국간 개발협력 정책간 조율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 국제개발기구(USAID), 한국과 일본 외교부와 실무담당기관인 USAID, 한국 국제협력단(KOICA),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함께 참여할 예정임.
- 3국은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안보 등 역량구축 노력과 해안경비대, 해양법 집행 역량 구축 등에 중점을 둔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3국의 역량강화 노력을 조율해나갈 계획임.

■ [경제협력] 3국은 경제안보대화 운용,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첨단산업기술 분야의 3국간 협력 등에 합의함.

- 2022년 11월 3국 정상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3년 8월 현재 총 두 차례의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개최되었으며, 반도체, 배터리,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보, 바이오 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과학연구 분야에서 3자간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 왕윤중 경제안보비서관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2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2023. 7)에서는 △경제·기술·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력 △양자·우주기술 등 핵심기술 협력 △디지털 인프라·표준 관련 협력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 △민감기술 보호방안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운용방안 △경제적 강압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sup>5)</sup>
- [조기경보 시스템] 각국이 운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핵심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분기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우선순위 품목을 식별하여 중요한 공급망 중단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 [신흥기술 협력] 3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국립연구소간 공동연구·개발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고, 개방형 무선접속망(RAN) 관련 협력과 우주안보 영역에서의 대화 증진에 합의함.
  - 3국은 6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지원 아래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와 한국과 일본 연구소 간 첨단컴퓨팅, 인공지능, 신소재, 기후, 지진 모델링 등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함.<sup>6)</sup>
- [핵심기술 보호] 핵심기술 불법탈취 및 유출을 막기 위해 3국 법 집행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미국 혁신기술타격대(법무부·상무부 주도)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경찰청간 회의 개최에 합의함.
- [기술표준] 3국은 AI를 포함한 신흥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원칙 형성에 협력하고, 한·미 양국 표준기구간 양자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쿼드(QUAD) 내 국제표준협력네트워크(ISCN)에서 논의되는 표준협력을 보완하는 것에 합의함.<sup>7)</sup>
  - 한국과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1년 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을 출범하였으며, 2023년 8월 제3차 한·미 표준협력포럼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과 미국 표준협회(ANSI)는 협력분야를 AI, 반도체, 양자기술, 자율차, 탄소중립(청정에너지) 등 기존 5개 분야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IoT 등 자동화·연결, 바이오뱅크, 디지털 신분증명 등을 추가한 14개 분야로 확대하고, 실질 성과 도출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그룹(WG) 신설 등에 합의함.<sup>8)</sup>

#### ■ [글로벌 이슈] 3국은 보건, 인적교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보건 분야에서는 3국 암 정책대화를 통해 암 역학데이터 공유, 연구, 교류 프로그램, 임상실험, 규제, 학술 파트너십 단행에 합의하였음.
- 3국 국제리더십 청년회의가 2024년 상반기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3국의 중견 정부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기술정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이 예정됨.

5) 대통령실 보도자료(2023. 7. 19), 「제2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개최: 경제·기술·에너지 안보, 핵심·신흥기술 등 협력 방안에 대해 3국이 논의」.

6) 백악관, "FACT SHEET: The Trilateral Leaders' Summit at Camp David,"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fact-sheet-the-trilateral-leaders-summit-at-camp-david/>(검색일: 2023. 8. 21)

7) *Ibid.*

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8. 10),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표준으로 뒷받침」.



표 5.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 정리

분야	주요 합의 내용
협업체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안보실장회의, 산업장관회의(신설)</li> </ul> </li> <li>재무장관회의, 3국 인도태평양대화(차관보급) 개최</li> </ul>
군사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구축</li> <li>정기적 군사훈련 실시, 3국 군사훈련 계획 사전 수립</li> <li>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WG) 신설</li> <li>정보공유 및 조율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li> <li>정보조작 및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방안 협의</li> </ul>
역내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국 개발금융기구간 공조 확대</li> <li>3국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li> <li>3국 개발협력정책대화(10월 예정)</li> </ul>
경제·기술 협력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역량강화 이니셔티브 구축</li> <li>경제안보대화 운용</li> <li>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li> <li>3국 국립연구소 협력(6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지원)</li> <li>핵심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구축</li> <li>한·미 양국 표준기구간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쿼드의 ISCN 보완)</li> </ul>
보건 인적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국간 암 문샷(moon shot) 협력정책대화 개최</li> <li>3국 국제리더십 청년회의(2024년 상반기 부산)</li> <li>3국 중견 정부관료들 대상으로 기술리더 양성 프로그램 시행</li> </ul>

자료: 백악관, "FACT SHEET: The Trilateral Leaders' Summit at Camp David,"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fact-sheet-the-trilateral-leaders-summit-at-camp-david/>(검색일: 2023. 8. 21)  
토대로 저자 정리.

## 나. 양자 정상회의 논의 내용

-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더불어 한·일, 한·미, 미·일 정상회의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안보 및 첨단산업 협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고위 경제협의회 재개를 비롯해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합의함.
  - 또한 양국은 외교차관전략대화 개최(하반기 예정)에 합의함.
-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대북공조 및 한·미 간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함.

  - [북한] 지난 4월에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이행을 평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대북공조 강화방침에 합의함.

- [한·미 협력]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함.
- 미·일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역내 이슈에 대한 협의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등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의 공동개발 착수에 합의하는 등 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함.
- [러시아] 러·우 전쟁과 관련하여 G7 차원에서 협력하며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합의함.
- [중국] 대중전략과 관련해서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 대해 중국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만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내] 또한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함.

### 3. 시사점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향후 정상회의와 국방·외교·산업 분야 장관급회의의 정례화를 통한 3국간 협력체계의 제도화, 한국의 미국 주도 소다자협의체 정식 참여, 안보뿐 아니라 경제협력, 개발협력, 금융 분야를 포괄하는 3국간 협력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를 포함하여 국방, 외교, 산업, 경제협력, 금융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6개 3국 장관급·차관급 회의에 대한 연례화에 합의하였으며,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협의 채널(예, 경제안보대화, 개발협력정책대화)이 함께 운용될 방침임.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계기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태지역 소다자협의체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됨.
  - 미국 주도 인태지역 소다자협의체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Quad), 미국·영국·호주의 오키스(AUKUS) 등이 있음.
  - 한·미·일 각국의 인태전략간에 유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내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한·미·일 3국은 공식적으로 고위급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경제협력 부문에서도 3자간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한·미·일 정상은 외교, 국방, 상무·산업 장관 간의 회의를 연례화하는 데 합의함.
  - 미국은 과거부터 외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대화(dialogue)’ 채널을 활용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안보, 전략, 경제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대화 채널이 있음.
    - 미국과 중국은 2006~08년 전략적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운영하며 이를 2009년부터 ‘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2017년부터는 ‘포괄적경제대화(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라는 명칭으로 대화 채널을 운영해옴.<sup>9)</sup>

9) 미·중 포괄적경제대화는 2017년 회담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음.

- 미국의 대화 채널 중 경제와 관련된 대화 채널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무부가 주관부처로 참여하는 경제대화(Economic Dialogue)와 상무부가 주관부처로 참여하는 산업협력대화(Commercial Dialogue)가 있음.
  - 미국의 경제대화 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그리스, UAE 등이 있으며, 산업협력대화 대상국은 한국, 브라질, 인도, 호주 등임.
  - 한국과 미국 간에는 2014~15년 ‘산업협력대화(Commercial Dialogue)’ 장관급 연례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국장급으로 격하되었으며, 2022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명칭을 ‘공급망·산업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로 변경하며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함.
- 한국은 미국과 양자간 경제와 산업협력 관련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과는 정례화된 경제·산업협력 관련 정부간 협력수단이 마땅히 없었으므로 이번 3자간 고위급회의 정례화를 통해 일본과 정부간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의 핵심 대상품목으로 핵심광물이 재강조된 만큼, 대상품목에 대한 미·일과의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 Security Partnership)<sup>10)</sup> 참여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현지시간 7월 27일)한 2024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미국은 글로벌 광물시장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을 자국 핵심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에 동 법안은 △핵심광물 개발 프로젝트 △생산기술 △미국 내 가공시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 Quad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활용,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핵심광물 투자 및 개발 촉진을 위한 다자간협의체 개시를 주문하고 있음.<sup>11)</sup>
- 따라서 한국은 핵심광물별 수급 리스크, 공공비축 정보 등을 포함하는 자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미·일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광산 및 가공시설 분포 현황 등을 비롯한 개별 프로젝트 정보를 더욱 긴밀히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국의 상무부, 국제개발처, 에너지부, 지질조사국, 국방부, 국무부 등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통해 공개될 공급망 취약성을 가진 핵심광물 우선순위와 매장지역에 관한 정보 공유를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이를 MSP 차원에서 협의 및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해당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간 핵심신기술(CET: 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공동 개발 및 보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산학연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부처 실무 대응조직을 조속히 구성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탐사, 슈퍼컴퓨팅 등 핵심신기술 분야에서

10)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공급망을 안정화 및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파트너십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11개국(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EU)이 참여하고 있음.

11) 118 Congress(2023. 7. 27), "H.R.2670," <https://www.congress.gov/118/bills/hr2670/BILLS-118hr2670eas.pdf>.

3국이 공동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산학연이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조속히 유관부처 실무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양자기술, 우주탐사 등 상기에 언급한 핵심신흥기술 중 일부는 상용화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장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여 3국간 공동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미·일 정상회의 종료 이후 미국의 법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이끄는 혁신기술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경찰청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관련 부서 내 대응조직을 신속히 구성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할 필요
  - ※ 미국의 혁신기술타격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적성국에 의한 첨단기술 탈취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국간 유관부처 회의에서는 탈취 우려가 있는 핵심신흥기술 목록 검토, 기존 탈취 사례 정보(대상 기술, 탈취국가 등) 공유, 핵심신흥기술 유출 방지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인태지역, ICT, 공급망 회복성, 탈탄소화 등 인프라 개발협력에서 3국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미국, 일본의 개발협력 분야 비교우위, 관심분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경쟁은 개발협력 부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미·일은 공통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가치에 기반해서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과 같은 분야별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분야별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추진 가능성이 있음.<sup>12)</sup>
  - 한·미·일은 공통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데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중요한 핵심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양자협력과 함께 소다자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방식을 택하고 있음.<sup>13)</sup>
  - 일례로 한국(DS Equity), 미국(EXIM·DFC), 일본(JBIC)은 UAE(에미리트원자력공사)와 함께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사업의 일환인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4개국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노력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의 목적 아래 미국 뉴스케일사 기술에 기반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소형모듈원자로 발전시설 구축에 최대 2억 7,5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됨.<sup>14)</sup>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년 8월 한국 수출입은행(EXIM),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간 업무협약이 체결됨.<sup>15)</sup>
  - 한국은 한·미·일 소다자협의뿐 아니라 한·미·호, 한·호·몽 등 새로운 형태의 소다자협의를 시도 중임.<sup>16)</sup>

12) 송지선(2023. 6. 22), 「개발협력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역적 복합위기」, 제55회 개발협력포럼.

13) 김태균(2023),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국일본 인프라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소다자주의의 포괄적 전략화」, p. 5, EAI 위키페이지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시리즈 9.

14) 한겨레(2023. 5. 21), 「중·러 겨냥 '미국 루마니아 소형원전 계획'에 한국 사모펀드 참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92609.html>(검색일: 2023. 8. 25).

15) JBIC 보도자료(2023. 6. 29), 「JBIC signs MOU with Export-Import Bank of Korea」, [https://www.jbic.go.jp/en/information/press/press-2023/press\\_00047.html](https://www.jbic.go.jp/en/information/press/press-2023/press_00047.html)(검색일: 2023. 8. 25).

16) 한국경제(2023. 6. 4), 「한미호·한미몽... 활발해지는 '가치 공유국' 소다자 협의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6048377Y>(검색일: 2023. 8. 25).

- 역내 소다자협의체 등을 통한 개발협력 추진 확대는 지역 내 도전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보편적 성과뿐 아니라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공급망 다각화 등을 통한 국가 경제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한·미·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지속성이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한·미·일 공조와 함께 구체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한·일은 2022년 3월 이래 일곱 차례의 정상회의를 진행하면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거사 문제와 같은 갈등요인이 상존하는 한·일 간 연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협력성과 도출이 긴요함.
  - 아울러 경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 내 구체적 협력성과로 기술 및 산업 협력뿐 아니라 탈탄소화, 제3국 인프라 개발과 같은 보편적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sup>17)</sup>
  - 2023년 6월 한국 수출입은행(EXIM)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인프라사업 개발 △공급망 다변화 △탈탄소화 △공동 사후관리와 같은 양행간 공동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함.
-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일본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한국경제와 지역의 안정 구축에 긴요하므로 한·중 양자협력과 역내 협의체인 한·일·중 정상회의, APEC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주요 협력 국가’, 한·일·중 3국간 협력은 ‘인태지역의 안정을 구축하고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적시하고 있음.<sup>18)</sup>
  -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FOIP)에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전략 원칙의 하나로 ‘포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미일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이슈에서 중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일본과 중국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일본은 미일동맹을 최우선시하는 한편 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에 조건부 참여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중국과 Japan-China Third Country Market Cooperation Forum을 결성하고 제3국에서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52개의 협력약정서에 서명한 바 있음에 주목할 필요<sup>19)</sup>
  - 2023년 말에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역내 주요 소다자협의체인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기대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일·중 3국은 정상회의 이하 환경, 교통·물류, 문화, 보건 등 27개 포괄적 분야에서의 고위급·실무진 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며, 3국협력사무국(TCS)이 3국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미국 주도의 안보 관련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논의의 장이 되는 한·미·일 협력체계와 IPEF에 한

17) 김태균(2023),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국일본 인프라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소다자주의의 포괄적 전략화」, EAI 위킹페이퍼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시리즈 9.

18) 대한민국정부(2023. 1. 3),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 12, p. 29.

19) 백우열 외(2020), 「신남방정책의 심화를 위한 소다자협력 추진방안」, p. 55,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 쿼드에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한·일·중 3국간 협력의제는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원자력 안전 등 보편적인 지역 및 글로벌 이슈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7월 중국의 왕이 정치국위원은 한·일·중의 틀을 재출발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sup>20)</sup>
-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은 ‘남남협력’을 강조하며 개발도상국들의 협력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8월 22~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국가간 이해 관계에 차이는 있지만 브릭스 회원국 수를 늘리려는 움직임도 있음.
- 또한 UN과의 협력하에 ‘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족시키고 개도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주도하고 있음.<sup>21)</sup>
-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방식대로 국제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한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KIEP**

20) 及川正也(2023. 8. 29), 「東奔政走: 動き出す「日米韓」と「日中韓」, 求められる日本の自立的な外交」, 毎日新聞.

21) 2023년 8월 현재 약 7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세부사항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 파악하기 어려움. Financial Times(2023. 8. 23).